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스위스 호텔.

환경을 위한 하룻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심한 공 들이는 스위스 호텔들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 실행하는 스위스 호텔 업계
 지속가능한 관광, 이래서 가능하다
 여행자와 현지 주민, 환경 사이의 조화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

관광 대국 스위스에서는 여행자와 현지 주민, 환경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려’에 세심한 공을 들여왔다. 호텔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관광’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성에 세심한 공을 들이는 호텔을 소개한다.

1. 취리히(Zurich)의 돌더 그랜드(The Dolder Grand)*****

지속가능성은 돌더 그랜드 기업 문화의 일부로 깊숙히 자리해 있다. 모든 관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초점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중 대표적인 분야는 탄소 배출, 에너지 소비, 음식 준비, 종이 소비, 조달, 배출, 재활용, 물 관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특히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2. 스위스 유스 호스텔

스위스 전역에 있는 유스 호스텔도 지속가능성에 대단한 공헌을 하는 숙박 시설이다. 따라서 유스 호스텔 건물을 지을 때에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다. 그 예로 이미 2004년 1월에 미네르기(Minergie) 요건대로 건축한 최초의 유스 호스텔이 체르마트에 문을 열기도 했다.

3. 루체른(Luzern)의 래디슨 블루 호텔(Radisson Blu Hotel Lucerne)****

래디슨 호텔 그룹은 책임감 있는 기업 운영에 있어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루체른에 있는 래디슨 블루 호텔도 마찬가지다.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라는 원칙을 직원들이 매일 실천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루체른이라는 도시 내에서도,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지구”를 만드는데 공헌한다는 목표를 위해 애쓰는 호텔이다.

4. 로르샤허베르크(Rorschacherberg)의 쉴로스 바르데그(Schloss Wartegg)***s

스위스 북동부, 보덴제(Bodensee) 호숫가에 있는 고성으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도 자원을 최대한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생태라 믿는 곳이다.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원칙이 매사를 결정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에너지 발전, 공급사 및 제품 선정, 정원 가꾸기, 주방에서의 음식 준비, 투숙객 서비스, 직원 응대에 대해서도 세심한 공을 들인다.

5. 루체른(Luzern)의 제호텔 에르미타주(Seehotel Hermitage)*****

호반의 호텔로, 대단한 뷰를 선사한다. 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해도 좋다. 음식을 만들 때 조차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는데, 호텔 운영 전반에 반영되는 태도다. 음식 쓰레기 감축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6. 체르마트(Zermatt)의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CERVO Mountain Resort)*****

2009년 체르보가 처음 생겼을 당시부터 생태 및 사회적 책임감은 이 근사한 리조트의 핵심 원칙이었다. 사람과 환경을 윤리적으로 다루는 것이 체르보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다짐이 체르보 운영 전반을 꿰뚫고 있다. 스파 확장 때에도 이런 신념이 세심하고 심각하게 반영되었다.



7. 아로자(Arosa)의 발사나 호텔 아로자(Valsana Hotel Arosa)**s**

스위스 동부에 있는 호텔로, 혁신적이면서도 신기한 지속가능성 컨셉을 선보인다. 선도적인 테크놀로지 컨셉은 지속가능성과 자체 에너지 발전에 있어 선구적인 숙소로 거듭나게 해주었는데, 호텔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8. 그슈타트(Gstaad)의 알피나 그슈타트(The Alpina Gstaad)***s**

현지에서 공수한 목재와 돌, 현지 수공업자와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호텔을 지었다. 알피나 그슈타트는 모든 요소에 있어 에너지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전문 업체와 면밀히 공조하는 등 대단한 책임감을 실행하고 있다.

9. 바젤(Basel)의 가이아 호텔(GAIA Hotel)****

지속가능성은 가이아 전반의 핵심 가치다. 목표 중 하나는 가이아 호텔을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호텔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래된 빵은 바젤 동물원에 서식하는 코끼리에게 전달되는데, 남은 빵을 무척이나 맛있게 먹는다는 후문이다.

10. 베르겐(Bergün)의 쿠르하우스 베르겐(Kurhaus Bergün)

1903년에 지어진 호텔로, 생태, 사회 및 경제 지속가능성에 헌신하는 곳이다.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호텔의 재정 계획에도 반영된다. 스파 빌딩의 구조가 보수 공사 중인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1. 사스페(Saas-Fee)의 웰니스 호스텔(wellnessHostel)4000

2014년에 문을 연 세계 최초의 웰니스 호텔로, 당시만 해도 생태적인 요소가 각광을 받았다.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다층 목조 호텔 건물인데, 새로운 소방 안전 규정에 맞게 건축되었으며, 태양열 지역난방, 솔라 패널, 100% 재생 전기 등 인상적인 테크놀로지로 무장해 더욱 주목받았다.

12. 그슈타트(Gstaad)의 베르너호프 스위스 퀄리티 호텔(Bernerhof Swiss Quality Hotel)****

자원과 지역의 뿌리, 사회적 조화를 세심히 고려하는 것으로 정평 난 호텔로, 호텔 매니지먼트 전반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심하고 실현하는 곳이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